


2017
제53호

속기계

SINCE 1970



 대한속기협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 강태중 대통령 되기 후
 속기인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CONTENTS

2017속기계 53호

- 4 머리말
역사를 기록하는 멈추지 않는 손 - 정성호
- 6 인사말
새로운 가능성의 도전은 탄탄한 기본기부터 - 안기철
- 8 연년 우리말
프·x 상징의 비밀 / 임신부? 임신부? - 박우찬 기자
- 14 2016 인터스테노
2016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참가 보고 - 이경숙
- 28 연구논문
친숙하지만 낯선 말, 의회 - 안기철
- 34 기획탐방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를 찾아가다! - 정다운 기자
- 40 인터뷰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길 - 박우찬 기자
- 48 기자수첩
동명속기와 의회속기에 관한 고찰 - 김진주 기자
내 옛대로 해석한 훈민정음과 CAS 한글속기 - 정다운 기자
- 66 세미나
같은 듯 다른 속기학술세미나의 모습 - 양세희
- 72 새내기 인사
인생에서 매우 값진 것 - 김보라
꿈을 살고 있습니다 - 이보람
하다 보면 다 된다 - 정우민
- 86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2016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 90 회원동선
색다른 속기시, 제주별원 원혜승 속기시 인터뷰 - 김민아 기자
속기영역 확대의 새 지평을 열어 가고 있는 교육속기의 선구자 - 강병호 센터장
- 104 협회동정
제50회 정기총회
- 106 편집후기



역사를 기록하는 엄숙한 손



속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대한속기협회장을 맡게 된 경기 양주시 출신 정성호입니다.

속기인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설립되어 1966년 대한속기협회로 재창립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속기문화 창달을 위해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맘과 열정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속기문화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사회 발전과 함께 왔습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도 속기는 역사의 한 자 한 자를 엄숙히 써 내려갔습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사초를 기록하는 이들의 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해 보이지 않는 힘이 모여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촛불시민혁명을 보았습니다.

촛불은 느껴지지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아이의 입김에도 쉽게 꺼집니다. 그렇게 약한 촛불이지만 많은 이들이 모여 손에 든 촛불은 최고 통치자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한 글자 한 글자 그 자체는 힘이 없지만 이 글자들이 모여 회의록이 되고 증거자료가 되며 역사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글자들은 듣지 못하는 이에게는 소리가 되어 줍니다.

흔히 정치의 역할로 갈등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협상, 제3자 조정,

사법기관 중재 등 각종 분쟁 해법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실 확인' (fact-finding)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종 회의록은 갈등 분석과 문제 해결의 결정적 근거서류가 됩니다. 특히 회의체 기관인 국회 의사 진행의 정당성은 속기록 검증을 통해 확보됩니다.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까지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속기 수요는 급증한 반면, 뒤따라야 할 의정기록 인력 증원과 계 편성 개선 등의 후속조치는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로 있으며 여야 협조로 속기사무관 정원 2명을 어렵게 늘렸지만, 당시 직제개편 과정에서 다른 직렬의 무관심과 언론의 비판적 시선에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새삼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기록정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472년간 국가 운영 전반은 물론 민간의 세세한 사실까지 섬 없이 기술한 실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붓 한 자루에 목숨을 걸고 권력자에 맞서 직필의 길을 걸었던 율공은 사관들이었습니다.

속기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사관들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기억이라면 속기는 날것 그대로의 사실로서 더욱 의미가 큼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여러분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속기의 영문명은 short-hand이지만, 그 손이 써 내려간 기록은 결코 짧지 않고 오래도록 무겁습니다. 일상을 반복하는 힘, 일상을 반복하게 하는 힘, 그것은 내 자리에 대한 사명과 책임감일 것입니다.

저는 대한속기협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정성호

새로운 가능성의 도전은 탄탄한 기본기부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기철입니다.

올해 제50회 정기총회는 우리 협회 정관에 따라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결과 정성호 의원님을 제10대 회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 자신, 여러모로 부족함을 알기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에 따른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이철우 회장님과 이순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우리 협회를 위하여 진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새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1955년 속기학술협회로 창립된 지 벌써 6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미디어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기록 업무 영역이 다소 위축되는 듯한 흐름이 있었으나 근래 공공 영역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 협회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속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궁극적으로 기록보국과 공익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의체나 그 밖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인 회의록 등 각종 기록을 통한 공개가 어떠한 국가나 사회 조직에서도 필수적인 명제로 대두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협회 목적 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회원 결속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차근차근 회무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협회는 수많은 선배·후배 회원님들의 결속체입니다. 홀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야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많을수록 협회가 발전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이러한 점을 명심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사장 안 기 철

안녕! 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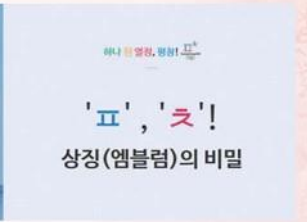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용성
문화가 있는 곳



Ⅱ · ㅈ 상징의 비밀

박우찬 기자



어느새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땅,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게 될 이번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7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평창 올림픽을 미리 즐겨 볼까요?

여러분은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륜기, 마스코트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와 함께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만드는 상징(엠블럼)을 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자,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에 숨겨진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상징이에요. 알록달록하면서도 간결한 모양이 참 예쁘지요? 'PyeongChang 2018' 위에 적힌 'ㅍ'과 'ㅊ'이 특히 눈에 띕니다.

'ㅍ'과 'ㅊ'은 '평창'의 초성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쓰던 'ㅍ'과 'ㅊ'의 모양과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먼저 왼쪽의 '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획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색깔들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우선 위쪽의 파란색 획은 '하늘'을, 아래쪽의 빨간색은 '땅'을 의미하고요, 가운데 세로로 서 있는 검은색과 초록색 획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 즉 올림픽의 선수들과 관객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천지인(天地人)의 화합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각 획 사이의 틈도 발견하셨나요? 'ㅍ'을 경기장의 조감도라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획 사이의 틈이 마치 여러 개의 문처럼 보이는데요. 획 사이의 틈은 꼭 막혀서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ㅊ'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무엇인가가 모여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눈을 형상화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처럼 다섯 개의 획이 모이도록 'ㅊ'을 꾸민 것은 반짝이는 눈꽃 그리고

올림픽에서 빛날 선수들을 의미한다는군요. 다섯 개의 획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형상화한 것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ㅍ'과 'ㅊ'을 이루고 있는 각 획의 색을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의 색과 같게 한 것은 우리 고유의 한글에 천지인 사상과 스포츠 정신을 함께 담고자 한 것일래요.

글자 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지요?

임신부? 임산부?



바른 말 알기 생활
임신부 = 임부
임산부 = 임부 + 산부

최근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다른 좌석과 달리 분홍색으로 구분된 좌석을 보셨을 텐데요, 이 좌석은 대중교통을 장시간 서서 이용하기 어려운 임부 및 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입니다.



임신부 좌석? 임산부 좌석?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부 좌석'도 맞고 '임산부 좌석'도 맞습니다. 임신한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면 '임신부 좌석'으로, 임부와 산부 모두를 위한 자리라면 '임산부 좌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기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임신부'는 '임부'와 같은 뜻으로 '아이를 밴 여자'만을 가리키고, '임산부'는 '아이를 밴 여자'를 뜻하는 '임부'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뜻하는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즉 임신한 여성에게는 '임신부', '임산부'라는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는데요, 임신한 여성만을 꼭 집어 말할 때는 '임부'나 '임신부'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임신한 여성에게 '산모'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쓰임입니다. '산모'는 '산부'와 같은 말로서, 갓 해산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2016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참가 보고

이 경 숙



기 간: 2016. 10. 5. - 10. 8.

장 소: Croatia Zagreb

한국대표단: 이순영(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오경애(대한속기협회 총무이사)

이경숙(대한속기협회 회원)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17개국 65인 참가
- Korea, Austria, Belgium, China, Croatia, Czech Republic,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taly, Poland, Switzerland, The Netherlands, Turkey, United Kingdom, USA

참가 목적

- 크로아티아 의회 방문, 기록 관련 자료 관람 및 정보 교류
- 디지털 등 기록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각국 의회의 방안 공유
- 각국 의회의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각국 의회의 회의록 발간체계 및 회의록 활용 현황 파악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10월 5일(수)	전일	Arrival of all participants
	14:00	Board meeting
	20:00	Welcome dinner
10월 6일(목)	09:00	Council meeting1
	12:00	Lunch
	13:30-16:30	IPRS meeting1
	17:00-20:00	Council meeting2
10월 7일(금)	09:00	Council meeting3-IPRS meeting2
	12:00	Lunch
	13:30-16:00	· Guided city tour · Visit to the Croatian Parliament
	20:00	Gala dinner
10월 8일(토)	전일	Excursion-Plitvice National Park

참가 보고

1. Welcome dinner

2016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의 전야제는 'Welcome dinner'로 시작하였다. Arcotel Allegra Hotel 1층에서 Fausto Ramondelli 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바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각국 대표들이 상호 간에 인사를 하고 환담을 하는 형식이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는 17개국에서 65인의 속기사가 참여하였는데 주로 유럽 쪽 국가가 대부분이고 아시아 참가국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뿐이었다. 특히 Fausto 회장이 직접 한국 대표 테이블로 와서 환영인사를 해 주는 등 인터스테노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터키 등 몇몇 나라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특히 중국 대표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인터스테노 총회는 평균적으로 60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경기대회 개



한국 대표단에게 환영인사를 하는 Fausto 회장



중국 대표단과 인사하는 이순영 이사장

최 등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되지만 중앙위원회는 올해 참여 인원이 60여 명으로 소규모이고 행사도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2. Council meeting I · II · III

중앙위원회는 INTERSTENO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자그레브에서는 총 3차에 걸쳐 Council meeting이 개최되었으며 기본안건을 논의하다 결정이 안 되면 다음 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추모 묵념

1차 회의 개최 직후 명예회장 Mr. Ihsan Yener, 원로회원 Mr. Gian Paolo Trivulzio 두 고인에 대한 추모묵념이 먼저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Fausto 회장의 개회사가 있은 후 특별한 인사말 없이 바로 Danny Devrient의 사회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2016년도 Council Meeting Azenda는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집행부의 보고를 들은

후 간략한 질문이 이어지고 의의가 없는 경우 바로 추인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 통과 후, 2017년 인터스테노에서 개최하는 대회들의 세부 사항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항 Multilingual contest는 참가자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의 언어로 text를 만들어 내는 경연대회이다. 각국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모국어의 어려움을 토로 하며 페널티를 줄여 줄 것과 유럽권 유사한 계통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인식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최소한 2개 국어 이상에 대하여 분당 120, 130, 140음절로 증가하는 속도에서 3분간의 구술을 포착해야 하며, 참가자를 기준으로 외국어에 대해서는 최대 50페널티, 모국어에 대해서는 최대 30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제7항 Real time에 대한 논의는 2015부다페스트 Real time의 진행을 맡았던 Linda Drake의 보고사항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대회에서 등급을 변경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으며, 대회를 마친 이후에 등급을 단순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고, 오늘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 속도 증가를 기존의 1분에서 2분으로 하자는 제안,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Real Time 경연대회에서 각국의 오류를 채점하는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속도로 10분 길이의 받아쓰기를 포착하는 정도만 결정하고 기타 사항들은 다음 회의로 결정을 보류하였다.

제6항 Speech capturing과 제8항 Note taking and summary reporting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도입되었다. 다만 Speech capturing은 15분 길이의 text를 캡처해서 옮기되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 A, B, C 3개의 등급으로 분류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Note taking and summary reporting의 경우 각 섹션에서 요약에 허용되는 최대단어 수에 대한 결정은 보류되었다.

제9항 Internet Contest 2017은 전 세계 18개 언어로 1500여 명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각오가 있었다. 2003년 200여 명에서 시작한 대회가 15회 차를 맞이하며 전 세계 청소년들의 키보드 숙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 등 대회의 성과에 대한 토의들이 많이 나왔으며, 실시간자를 4월 17일~5월 19일로 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각국의 시차 때문에 실시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위임되었다.

Council Meeting에서 한국 대표단은 규칙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로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의 의견 표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인터스테노에서 속기에 국한하지 않고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기술의 숙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연대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IPRS meeting I · II

사회자, 네덜란드 Rian Schwarz-van Poppel의 개회 선언으로 IPRS meeting I · II가 시작되었다.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속기협회 회장인 Kristina Zlodi가 Zagreb 시내 설명과 인사 및 가격 등을 묻는 크로아티아어를 알려 주는 등 Orientation을 해 주었는데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어서 첫 번째 주제인 'Reporting questions in the Sicilian parliament'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Fabrizio Verruso가 발표를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의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부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 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기록 중요성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속기사의 역할도 약간 거론되었다.

이번 주제는 속기 기록 방식, 기록물 생산 과정보다 기록 자체의 중요성과 이용에 방점이 주어졌으며 이를 통해 인터스테노가 기록 자체 그리고 기록물의 의

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휴식 후, 네덜란드의 Henny van der Meijden / Mariëtte Tesselhof가 'Touch typing for better spelling and creative writing'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 나갔다.

네덜란드 동부의 20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2143명을 대상으로 Touch typing과 올바른 철자법 구사 및 창의적인 글쓰기와의 연관관계에 대해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한 주제 발표였다.

원활한 Touch typing은 올바른 철자법의 구사뿐만 아니라 그림과 몇 개의 제시어를 주고 이루어진 창의적인 글쓰기에서도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보고였으며 학교에서의 체계적 Touch typing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Touch typing만을 교육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당한 정도의 Touch typing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디지털 환경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라도 컴퓨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Touch typing을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또 10개 손가락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Touch typing



IPRS Meeting 주제 발표 중

을 할 수 있는 공식 교육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날 이어진 IPRS meeting II에서는 'The production of parliamentary reports, a research about the methods used in different parliaments'로 네덜란드 Marlene Rijkse가 주제발표를 했다.

'The production of parliamentary reports'라는 주제 자체가 매우 마음에 와 닿았다. 한국 국회도 많은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25개국에 미리 질 문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회답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말한 그대로의 회의록을 생산하는 국가와 요약보고서를 생산하는 국가'라는 챗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속기사의 부족으로 '말한 그대로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못하고 요약본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음성녹음을 회의록 생산 시 보완·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필속기(Pen Shorthand)를 하고 있는 국가는 주요 회의에만 수필속기사를 배석하게 한다. 특별히 카메룬 의회는 영어와 프랑스어 2개 국어로 회의록을 생산하고 있어 회의록 공표에 타 국가의 두 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의 다음날 오전 6시 혹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록을 발간한다.

또한 이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가 음성인식 도입 시도는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억양, 발음속도, 방언 등 음성인식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가는 일본 정도이다. 아직은 한정적으로 도입 및 이용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활용 가능

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나머지 내용은 교대시간, 1차 본회의에 투입되는 전체 인원 수 등에 대한 비교 등이 있었는데 타 국가 기록시스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두 번째로 핀란드 Niklas Varisto와 Kalle Niemima탐이 'A survey about audio recording systems in the parliaments of Europe'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핀란드 의회는 속기사가 40여 명 내외로 상당히 작은 조직으로 운영되며 녹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녹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녹음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핀란드 언어에 적합하고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과정 보고였다.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의 치밀하고 섬세한 고민에 대한 부분은 배울 부분이 아닌가 한다.

4. 크로아티아 의회 방문 및 자그레브시 관광



크로아티아 의회 앞

크로아티아 의회는 자그레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그레브 자체가 워낙 작은 도시여서 행사가 개최되는 아르코텔에서 트램을 타고 두 정거장 이동한 곳에 위치해 있다.

크로아티아 의회는 우리 국회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소박한 의형이었으며 내부도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우리 한국 대표 및 각국의 대표들은 본회의장을 참관하였다. 의석은 한국과 유사하게 전자화되어 있다. 우리 본회의장과 다른 점은, 의원석에 명패가 없다. 여타 유럽 국가 의회가 지정된 좌석 없이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층고는 낮았지만 그래도 의원 아닌 방청객들을 위해서 2층에 3면으로 방청석이 있다.

크로아티아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비밀·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4년 단임제이다. 의원 수는 선거구가 그때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2016년 현재는 151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의원 1/5의 제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제안서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응답 하여야 하며, 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결정된다.



본회의장 의원석에 착석한 이순영 이사장

크로아티아 의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발간한다. 우리는 회의록이 보관되어 있는 서고동으로 이동하여 회의록의 보관 상태와 전시된 수필속기 표본, 최초의 회의록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속기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잘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명의 대표들이 일만 가이드 1인의 설명을 듣는 관계로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물어볼 상황이 아니어서 많이 아쉬웠다.

의회 참관 이후에는 자그레브 시내 관광이 진행되었다. 걸어서 모든 시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하고 곳곳에 유적과 공원이 있어서 여유 있게 둘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로아티아 의회 회의록



회의록을 보관 중인 서고

5. 크로아티아속기협회 방문

자그레브 시내 관광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크로아티아속기협회를 방문했다. 크로아티아속기협회는 자그레브 시내의 중심가인 반엘라치치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고 규모도 상당히 크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속기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속기 관련 인원을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중등부, 성인부를 구분하여 레슨이 이루어질 정도로 배우는 사람이 많다. 국내 대회가 자주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주변 국제대회에도 출전하여 수상한 적도 많이 있다고 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 속기는 1882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크로아티아어로 된

속기 자체가 없고 체코나 슬로바키아 등에서 독일어로 된 속기를 배웠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비슷하다. 일제 강점기 시에 한국어로 된 속기법이 없어서 일본어 속기를 배워서 했던 상황이 그러하다. 1945년 무렵부터 한국어로 된 속기가 개발되고, 1948년 제헌국회부터는 한국어 속기사에 의해 속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6. 결론

인터스테노는 문자와 단어로 표현되는 text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는 단체이다. 수필이든 기계든 속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text를 구현하는 것은 인터스테노에서 추구하는 언어를 활자화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터스테노에서는 키보드 입력의 전문적인 접근방식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유용한 기본능력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리고 문서 작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최근의 시대적 요구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태블릿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빠르게 text를 구사하는 능력이 단지 언어를 문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 작문을 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인터스테노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Speech capturing, Text production, Realtime Speech Capturing, Text Correction, Note taking &

reporting, professional word processing, Audio transcription이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한속기협회에서도 사업을 기획할 때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대한속기협회에서는

1. 기록수단의 다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2. 인터스테노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고서의 축적 및 자료화.
3. IPRS와의 집중적인 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회의록 생산 체계 파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계획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친숙하지만 낯선 말, 의회

안기철

장 프랑수아 밀레의 1857년 작 '이삭줍기'는 소박하고 노동의 경건함이 가득한 농촌 풍경으로 감상된다. 전경에 세 명의 아낙네가 구부린 채 무언가를 줌고 있다. 밀레는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보다는 그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전원 속 농민을 많이 그렸다. 하지만 그림의 원경과 당시의 생활사를 연결해 보면 씁쓸하



게도 '이삭줍기'는 추수 후 농장주나 세리가 허락하는 낱알이라도 주워 모아야 연명이 될 정도로 곤궁했던, 봉건 왕조 시대 수탈당하던 농민과 빈민의 삶, 그리하여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인권 선언 등 세계사적 전환기

의 배경화면으로 보인다. 한 편의 그림이 시공을 넘나드는 담론을 가능케 한다. 작풍으로 인해 밀레는 한때 사회주의자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이삭줍기 시대 프랑스, 계몽사상의 여명이 밝았는데 루이 16세는 선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전비 채무와 궁정 사치,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다. 이의 타개를 위해 1789년 소집한 삼부회는 신분별 토론 방식과 표의 등가성 문제로 대립한다. 결국 신분제 의회에 반발한 제3신분(시민 계층)이 중심이 되어 새로이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임을 표방하고, '제한 및 사회문제 타결 시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며 테니스코트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근다.

빵을 달라고 외치는 농민과 빈곤층, 상 켈로트¹⁾들의 봉기는 국민의회에 대한 탄압과 맞물려 혁명과 반혁명, 전쟁, 제정 복귀 등 일대 혼돈을 거치며 봉건체제 개혁과 근대적 의회의 태동으로 귀결된다. 혁명의 기폭제라 할 수 있는 바스티유 습격 당일 루이 16세는 일기에 "rien(nothing)"이라 적었으며,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라고 하였다.²⁾

영국은 일찍이 1295년 에드워드 1세가 영국 최초의 중세적 신분제 의회를 소집하였다. 중산 계급의 지지를 얻어 정세 체도를 확립하고자 의회 구성 회원을 주고 수도원장 등 대귀족 외에 각 주에서 기사 2명, 각 도시의 시민 대표 2명으로 정하였다. 대체로 영국 사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의회 구성의 모델로 평가받아 훗날 모범의회(Model Parliament)라 불리게 되며, 의회는 항구적 제도로 정착한다.



프랑스 국민의회도 일단 영국식 의회를 건설하려 하였지만 혁명은 모든 것을 카오스로 몰아갔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1790년 '프랑스 혁명의 성찰'을 통하여 영국식 헌정제도를 옹호하며 혁명의 파괴력을 우려하였다. 오늘날 버크는

1) 혁명 활동가들이 17, 18세기 귀족의 상징인 켈로트(번머치)를 거부하며 긴 머지를 착용한 데서 나온 말. 일반적으로 소시민 이하의 무산층을 가리킨다.
2) 브리오슈는 일반 빵과 달리 달걀과 실탕 등이 많이 들어간 단과지방이다. 루소의 '고백록'에 나오는데 진위 여부에 이설이 있지만 당시 궁정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보수주의의 원조로 불린다. 그렇지만 영국 의회의 명성도 실상 13세기 이래 왕권과의 치열한 투쟁 끝에 확보된 역사적 결과물이다. 영국에서 의회란 명칭은 불어 parler(말하다)에서 유래한 Parliament(발언모임)이며, 영연방국은 모두 이와 같다. 프랑스는 Parlement이다. 물론 상원과 하원의 명칭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삭줍기 시대 복미 대륙, 독립전쟁으로 프랑스에 재정난을 가중시킨 미국은 막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이다. 미국 또한 신생 주정부의 재정난에 따라 1786년에 일단의 농민과 퇴역 군인들이 과세에 항의하는 셰이즈의 반란이 일어난다. 3개월간 유격전을 벌이다가 토벌된, 그리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각 주들은 유사한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농부들의 부채 유예 또는 감면 조치를 서둘러 제정한다. 동시에 그동안 독립에 집중했던 연방의회가 이런 내란 사태에 무기력한 것을 보고 더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에 공감하여 이듬해 헌법제정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른다. 결국 이 봉기는 미국 건국에 뜻밖의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이를 두고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폭군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말했다.³⁾ 독립 초기 각 주 대표는 종주국 영국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영국식 의회명인 Parliament를 버리고 대륙회의(Continental Congress)라 칭하였다.

일본, 천황은 유명무실하고 오랜 세월 도쿠가와 막부 정권 아래 지방 봉건 영주인 다이묘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개국 요구를 시작

으로 잇따른 서구 열강과 막부와의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반발한 존왕양이⁴⁾파가 쇠국에서 부국강병을 위한 개국론으로 전환, 막부 체제를 깨고 왕정복고에 성공한다.

초대 총리가 되는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하여 1889년에 프로이센헌법을 모방한 제국헌법을 제정하고 제국의회(Imperial Diet)를 구성하였다. 프로이센 헌법은 입헌 황제와 의회 수상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국가주의적인 빠른 권력행사가 가능한 모델이었다. 비스마르크는 1862년 수상에 임명되자 하원인 제국의회(Reichstag, Imperial Diet)에서 “헌하의 대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철과 피, 곧 병기와 병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연설하였다. 일본 제국의회는 줄여서 국회로도 불리다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연합군총사령부가 헌법으로 제안한 맥아더 초안이 제국의회를 통과하여 1947년에 시행되었으며 의회 명칭은 국회가 된다.

전제왕권국가 조선의 이삭줍기 시대는 어땠을까. 오늘날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는 숙종과 영조에 이어 봉당의 폐해를 막으려는 탕평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인의 안정을 위한 통공정책 등 일련의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외척의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조선의 국운은 쇠하게 된다. 당시 의회의 기능과 유사한 기관을 들자면 정사를 토론하며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홍문관과 정치에 대한 간쟁을 주 임무로 하는 사간원이 있다. 대한제국 수립 직후에는 개혁파가 입헌대의군주제를 모색하여 자문기관에 그치던 중추원에 의

3) 『나이바 지식백과』 『미국사 다이제스트 100』, 기암기획

4) 일본의 존왕양이(尊王攘夷)는 천황을 세우고, 오랑캐인 서구 열강을 배척한다는 정견이다.

회 기능을 부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치체제 대립에서 승리한 수구파는 1899년 '대한국국제'를 제정, 전제군주국임을 확고히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회는 대한민국국회이다. 국호의 유래는 우선 대한제국의 '대한'부터이다. 1897년 고종이 "우리나라는 원래 삼한(三韓)의 땅이었고 ...중략... 지금 우리의 국호가 조선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조선이라 부르지 않고 한(韓)으로 부르고 있으니 대만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며 정한 것이다.⁵⁾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제 병탄 이후 상해에 모인 독립지사들이 1919년 의회로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공화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⁶⁾ 이동녕 의장이 주재한 임시의정원 제1차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만으로 망했으니 대만으로 흥하자."고 한 제안대로 정하였다.

광복 후인 1948년 제헌국회에서 다시 정한 국호도 대한민국이다.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 투표 결과는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였다.⁷⁾ 이어 7월 1일 제22차 본회의 2독회, 국호에 대한 투표 결과 신의회 부의장은 "재석의원 188인, 가에 163, 부에 두 분,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표현이 최초이다. 우리 국회는 National Assembly이다.

5) 고종의 반주문(詔諭文). 반주문이란 나라에 정사가 있을 때 백성에게 널리 알리던 조서이다.

6)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3.)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7) 인사혁신처 블로그, 역사 속 국호

몇 나라의 예를 들어 친숙하지만 낯선 말, 의회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근대 의회사를 꿰뚫는 주요한 흐름은 대체로 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요 일반 국민이 대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러시아의 국가두마(Дума, 생각), 중국의 전인대 등 의회 형태의 기구는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한자로는 '모여서 의논하는 곳'. 어떻게 집단지성을 발휘해 '수의 정치'가 아닌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구한 '질의 정치'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것인가.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를 찾아가다!

정다운 기자

부천대학교에 스마트속기과가 신설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발 빠르게 취재에 나섰다. 화창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온 차들로 꽉 막힌 도로를 달려 도착한 부천대학교, '속기용어의 이해'라는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의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갔다.

“어허~ 저 친구도 왔네. (웃음)”

덜컹덜컹, 문을 여는 소리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돼 얼굴이 살짝 붉어진 내게 수업 중이던 이경식 교수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다.

토요일 오후 3시,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을 꽉 채운 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한 자라도 놓칠세라 매우 열띤 모습이었다.

쭈뼌쭈뼌 자리를 잡고 앉아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나에게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다.

“비공개회의록은 인쇄를 하나요, 안 하나요?”

나는 기어 들어가는 개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 해요.....”

오답이다. 역시 불안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입사 7년 차인데도 비공개회의록을 원고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끄러움에 또다시 얼굴

이 붉어졌다.

수업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났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연이어 이루어지는 수업에 힘들어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교수님의 배려이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학과에 들어오게 된 동기, 앞으로의 진로, 가장 재미있는 수업 등 미리 준비한 사항에 대해 물기도 하고, 되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답을 하기도 하며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인터뷰가 진행됐다.

〈인터뷰 내용 중〉

◎정다혜(28살) “저는 신촌속기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가지고 찾아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 교수님들은 자막방송이나 국회에 근



무하셨던 분들이라 실무 쪽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셨던 분도 있어서 그런 쪽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돼요.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는데 정보가 너무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개 광고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완식(24살) “저는 스마트속기 인터넷카페 공지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속기

공부를 한 지는 1년 정도 돼서 아직 자격증은 없고 여기를 나오면 한국스테노에 입사할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배워 가는 과정이라 모든 과목들이 다 새롭고 재미있어요.”

◎이지형(25살) “저는 한국스테노 강남지역국에 근무 중이고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속기 자격증을 따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제 적성에는 자막방송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도 재미있고요. 취업도 했고 구미에서 혼자 올라와 생활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있지만 스마트속기과에 들어오게 된 건 공부를 더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김영찬(36살) “저는 1급 자격증이 있고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인천법원 앞에서 속기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게 된 건 스마트속기과라는 상징성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도 속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실기 자격증이 아닌 학문적으로 속기과라는 과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속기 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터뷰를 해 보니 속기를 처음 배우는 학생보다는 이미 속기를 접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더 많아 보였다. 최근 필리버스터 때문에 속기사가 조명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소한 직업군이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경식 교수님도 처음에는 학생들이 순수 고등학교 졸업생들인 줄 알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 덕분에 요즘에는 수업준비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하시고 학생들에게 국회에 근무하셨을 때의 에피소드도 들려 주며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다.



다음 수업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을 마냥 붙잡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쉽지만 짧게 인터뷰를 마치고 이경식 교수님을 따라나섰다. 오랜만에 뵈는 교수님의 새로운 모습이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스마트속기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는 한국스마트속기협회-부천대 산학연계로 올해 신설된 최초의 속기 관련 학과이다. 2년 과정이며 수료 시 속기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속기 직무분석에 의해 속기의 이해, 속기장비론, 속기록 제작 실무 등 총 20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2017년 제1회 신입생은 모두 29명이다. 현재는 계약학과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문의가 많은 만큼 2년 후에는 정식학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경식 교수님은 “지금의 시작 단계이니 어려움도 많고 시행착오가 있다.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져야 하고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의 질을 높이려면 개인적으로 교수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근무하는 곳에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업무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과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공부를 해 놓아야지 인재풀이 없으면 스마트속기과가 발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맞는 말이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학과들이 많은 만큼 또 사라지는 학과, 심지어 정원이 부족해 폐교되는 대학교도 있는 현 시점에서 속기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말 많은 연구와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경식 교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속기에 이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책을 써 보니 속기도 이론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예를 들어 속기 장비론은 단순히 속기기계를 들고 가서 치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속기이론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속기를 손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속기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학위 과정은 속기계의 숙제였다. 그런 와중에 부천대학교에 스마트속기과가 개설된 것은 속기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속기사 전문학위 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실기 중심의 교육에서 실기와 이론이 결합된 체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경식 교수님의 즐거운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속기술 초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을 찾았다. 강의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아까

수업 중간에 들어가 수업 분위기를 흐린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창문 틈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올해 첫발을 내딛은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 앞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학과 홍보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 스마트속기과 개설이 우리 속기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의 부천대학교 스마트속기과 방문기를 마친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길

박우찬 기자

30년이란 어떤 시간일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 말을 하고 두 발로 걷게 되고 부모의 손을 떠나 다시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간.

개인의 역사 한 페이지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을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어떨까요?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입사 5년차 박우찬 기자가 입사 39년차 이순영 심의관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홍보부 심의관님 안녕하세요? 7층과 1층에 있으니 오며 가며 얼굴 뵙기도 어렵네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하는 일이 회의록을 만드는 일이니 심의관님이 생각하시는 속기록이란 무엇일까요?

이순영 제가 생각하는 속기록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요.

속기록은 그 시대의 언어, 정책, 문화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시대의 기록서일뿐더

러 우리 127명 속기사들의 피땀으로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기록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전 속기록을 대할 때의 태도나 지금 대할 때의 태도가 다르지 않아요.

홍보부 일일이 꼽으시자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오래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순영 예전에 국회선진화법 하기 전에는 폭력도 굉장히 많고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잖아요. 저는 외통위에서 한미 FTA 안전 상정한 것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때 외통 위원들이 야에 오전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야당 위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의자나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쳐서 문을 봉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후 1시쯤 속기사에게 들어오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니 한 층 위 회의장에서 창문으로 내려가서 들어갔어요. 언말이면 예산안 통과시킨다고 무력행사가 있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필리버스터지요.

홍보부 저도 경험한 거라서 참 반갑네요.

이순영 그렇지요. 작년에 속기계에서 특집으로도 내고 그랬었지요. 보통 국회법에는 1일 1차 회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안 필리버스터는 9일 동안 전 직원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일을 해 줘서 제가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직원들한테 일일이 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정도로 진짜 감사했다는

말씀을 이번 지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드릴게요.

홍보부 감사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고생했었지요.

이순영 그랬지요.

홍보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를 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순영 우리 조직이 127명이나 되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잖아요. 관리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직원 상하 간이나 수평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데 주변에 한두 명 닫힌 마음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도 그런 부분은 대화로 풀려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그 에너지를 써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설득 소통, 이런 것이 관리자로서 화두가 아닐까 해요.

홍보부 제가 아까 여쭙 본 거랑 비슷한데, 심의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속기사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원고가 신속·정확해야 하는 건데 회의가 바쁘게 돌아갈 때 신속성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건 누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서 어렵더라고요.

이순영 결국은 내가 내 실력 이상의 속기록을 만들어 낼 수 없어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계발을 하고 평소엔 신문 열심히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간지도 보지만 주간지, 월간지도 챙겨 봐요. 그러면 시사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는 큰 맥락과 단어 하나 하나 둘 다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공부할 하는 수밖에 없지요.

홍보부 여기서의 질문은 속기사의 자세인데 심의관님의 말씀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순영 그렇지요. 결국은 이게 손으로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머리로 하는 작업이지. 그래서 속기록은 신속·정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속도 내가 많이 알 수록 더 신속하게 나올 수 있고, 정확한 것은 단어의 정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맥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했을 거라는 그런 것은 맥락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홍보부 다음 질문은 국회 의정기록과가 여자분들이 많아서 워킹맘이 많잖아요. 워킹맘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해 온 것 같기는 한데 워킹맘으로서 변해 가는 대한민국을 살아오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워킹맘한테 점점 좋은 여건이 되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아까 직원 간에도 대화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딸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려웠어” 라든가 “어느 선배가 어떻게 했어”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직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지만 세 살 때 이해 못 하던 것을 네 살 때는 이해가 되고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점점 알게 돼요.

홍보부 아이들과도 소통을 하셨네요.

이순영 그리고 주말이면 국회에 데리고 와 같이 놀고, 아이들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려면 내가 힘든 걸 누구한테 다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극복하면서 표 안 나게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가정에서의 문제를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 까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녔지요. 그렇지만 또 아이들이 한창 손이 많이 가야 될 때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신경 쓰고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 직장에 조금 더 쓰고, 약간 릴레이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딸아이가 사회에 나가 보니 직장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더라고요. 딸과 친구같이 지내고 딸이 직장에서 힘들어 할 때 상담도 해 줄 수 있는 건 제가 워킹맘이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직장생활을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딸아이가 직장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럴 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긴 해요.

홍보부 다음은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음성인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필속기는 실무에서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수필속기와 저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음성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순영 수필속기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제헌국회부터 의정기록을 담당했던 수단이기도 하고요. 지금 유럽 쪽은 수필속기사들의 활동이 왕성한 것 같아요. 인터스테노를 가 봐도 나이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흐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속기사들 스스로 수필속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필속기로 할 수 있는 일부 분야를 정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필속기가 지금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라도 수필속기사들 명단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수필속기사들한테 세어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회

오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부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이 현실화되면서 40년 후에는 직업군들도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속기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회의록에 대한 사명감이나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음성인식도 훨씬 더 가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부 어쨌든 같이 가야 할 일이지는 하겠네요. 배타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순영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일로 만들어야 우리 것이 되지요.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것인데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록 쪽은 잘 알고 있지만 ICT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홍보부 먼 미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순영 굉장히 빨리 올 거예요.

홍보부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순영 속기사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뚜렷한 것이고요.



전임 대한속기협회 이사장으로서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생활이 행복하려면,

첫째, 기본업무에 대해 충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지요.

두 번째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건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큰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속기사 파이팅!!!

한 사람은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빠, 직장에서도 누군가의 선배로, 누군가의 후배로 관계를 맺으며 많은 지위를 갖게 되지요.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를 보면서 그들의 배울 점을 찾아갑니다.

이순영 심의관님과과의 인터뷰는 책임감과 균형감, 공부하는 자세를 배우며 반복되는 일상에 헤이해질 수 있었던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이순영 심의관님 감사합니다!

동방속기와 의회속기에 관한 고찰

김진주 기자

지난 필리버스터 이후 극한 직업 중의 하나로 속기사가 손꼽히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때보다 속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박근혜정부 국정조사 청문회로 인해 속기사라는 직업이 다시 한 번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속기사를 향한 전 국민적인 호기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솔직히 말하면, 현직 속기사로서 필자는 대중의 이러한 관심과 집중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검색 사이트에 '속기사'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댓글들 속에서 '속기사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걱정 어린 짧은 응원 의 말 한마디에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한껏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그 밖에 제삼자가 바라보는 속기사에 대한 인식들이 어떨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필자의 이목을 사로잡은 한 SNS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은 수필속기에 관련된 기본문자표와 의원의 발언—노트에 우측 상단에 '감사 계속'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정감사 시 의원의

발언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사실 기계 속기사인 본인은 위 노트에 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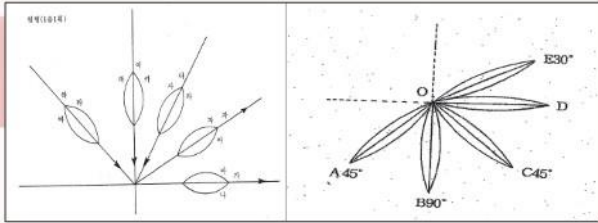


내용이 쓰여 있는지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음을 양해바란다—을 빼곡하게 속기 문자로 기록한 속기 노트였다. 추측해 보건대 위 게시물을 작성한 누리꾼은 과거의 한 뉴스 영상에서 노트에 직접 손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의 모습을 보고 속기란 단순하게 글자를 빨리 휘갈겨 쓰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게시물에 공감하여 리트윗을 한 횟수도 7000번을 훌쩍 넘겼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 누리꾼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수필속기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현재 수필속기에서 기계속기로 대체됨에 따라 회의장에서 수필속기로 기록하는 속기사들을 언론 매체에서나 현장에서 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중들의 인식에서 수필속기란 그저 글자나 빠르게 휘갈겨 쓰는 것 정도쯤으로 굳어져 버릴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어서다. 한국 근현대의 굵직굵직한 역사적 현장마다 묵묵하게 기록의 소임을 다해 온 수필속기의 진면모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나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공식적으로 '기록물'이라고 일컬어지는—기록의 시작점은 붓 끝에서 펜 끝으로 옮겨 갔다. 수필속기는 해방과 더불어 1946년 장기태가 일파식 속기법을 서울신문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김천한의 고려식 속기법, 박송의 한국속기, 박종완의 조선속기 및 박인태의 중앙식 속기법이 발표되었고 1948년에는 이동근의 동방속기가 발표되는 등 우리말 속기의 연구와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민정 이양 후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69년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일파식과 고려식을 주축으로 한 의회속기법식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기존의 속기 방식을 응용하거나 모방한 여러 속기법식이 있으나 이번 본지에서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였던 동방식과 의회식 속기법을 기본문자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왼쪽은 동방속기, 오른쪽은 의회속기의 원리도이다. 원리도란 속기문자의 선

이 나오게 된 형태를 나타내는 도표이며 외국의 기본원리를 혼합·활용한 정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속기문자 구조는 점·선·원·위치·방향·길이 등으로 구성되며 각 원리도에 따른 선의 방향, 직선 또는 곡선의 길이, 원의 유무에 따라 각 법식에 해당되는 문자가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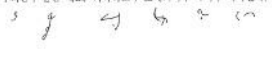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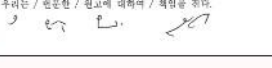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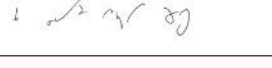
위 그림을 토대로 두 속기법식에 대해 말하자면, 동방속기에서 자음의 표기는 30도·45도·60도·90도·180도의 5개 각도로 구별되는 직선과 곡선을 사용하여 '가'부터 '하'까지 자음 14자를 표기하고, 의회속기는 30도·45도·90도·180도의 4개 각도로 구별되는 직선과 곡선으로 자음 12자를 사용하는데, 이 중 '카'행과 '타'행은 '가'행, '다'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모음의 표기에 있어서 두 속기법 공히 모음군에 따라 길이를 달리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방속기는 4mm, 8mm, 16mm 길이를 기본군으로 나눈 뒤—특수기법으로 2mm, 20mm를 사용하기도 한다—문자를 정측과 반측 양쪽으로 나누고 반소원의 유무 및 위치에 따라 세분화하여 표기하는 방법을 쓴다. 의회속기는 5mm, 10mm, 15mm의 기본군으로 나눈 뒤 그 길이에 따라 'ㅏ·ㅑ·ㅓ'를 표기하고 글자의 꼬리에 소원을 붙여 'ㅕ·ㅗ·ㅛ'행을 구분한다.

받침에 있어서는 동방속기의 경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받침을 사용하는데 받침에 따라 앞 문자의 머리, 허리, 꼬리 부분 등에 위치를 달리하여 받침이 되는 부호문자를 표기하며 반소원 등을 활용한 원의 크기, 띄어쓰기 등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그에 비해 의회속기는 유사음을 합쳐서 'ㄱ ㄴ ㅅ ㄹ' 4개의

받침만을 사용하여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 부호문자 끝의 방향을 달리하여 빼치거나 앞 문자의 끝부분에 살짝 걸치기 또는 원이나 사선 등을 붙임으로써 구분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방속기와 의회속기의 비슷한 듯 상이한 기본문자 구성 원리를 살펴보았다. 두 법식의 표기상 차이를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속기사의 신조'를 각 속기법식으로 표기해 보았다.

(동방속기)	(의회속기)
우리는 / 같은 대로 / 기록하고 / 보태거나 / 빠지 / 아니한다. 	우리는 / 같은 대로 / 기록하고 / 보태거나 / 빠지 / 아니한다. 
우리는 / 빈곤한 / 원고에 대하여 / 책임을 진다. 	우리는 / 빈곤한 / 원고에 대하여 / 책임을 진다. 

-결-

기술의 진보는 속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붓으로부터 시작해서 펜을 거쳐 기계로 전환되는 혁명을 일으켰고 현재는 음성인식 개발이 한창이다. 그야말로 속기계의 4차 혁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기록 수단의 거듭된 변화 속에서도 속기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속기는 계속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수많은 속기사들이 걸어

온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어록을 속기계에 맞게 각색하여 적용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속기의 역사를 잊은 속기인들에게 속기의 미래는 없다'.

현재 수필속기의 해는 저물어 가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속기계에 빛을 더해 온 그 공로는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값진 문화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후배 속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출처 - 동방속기법(기초편), 속기학(의회속기법식을 중심으로)

내 멋대로 해석한 훈민정음과 CAS 한글속기

정다운 기자

- 들어가며

내가 속기를 처음 접한 지도 이제 햇수로 10년이 되어 간다. 국회속기사의 부푼 꿈을 안고 찾아가던 학원에서 처음 속기자판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한 자 한 자 기본자를 배우며 속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도 나에게 속기는 낯설보다는 익숙함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아마도 대학시절 어설피름게나마 전공수업으로 배웠던 한글에 대한 얕은 지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국어가 좋아 무턱대고 지원했던 국문과,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국어와 너무나도 달랐던 국문학, 그래도 그중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배웠던 전공과목 중의 하나가 중세국어문법론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교수님이 좋아 그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때 배웠던 중세국어가 바로 훈민정음이었으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한글속기는 꽤 닮은 구석이 많다. 한글이라는 공통의 카테고리 묶여 있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속기 기본자를 익히는 동안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며 익숙함이 능숙함이 되기까지 부단히 애를 쓴 것 같다.

■ 무엇이 무엇이 비슷할까?

1. 나누기와 합하기

속기키보드와 일반 2벌식키보드(이하 일반키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음이 두 개씩 있다는 것이다. 속기키보드는 일반키보드와 달리 자음이 두 개씩 있다. 굳이 왜 같은 글자의 자판을 두 개씩 만들었을까?



CAS 속기키보드

우리말의 한 음절¹⁾은 일반적으로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 음절을 세 영역으로 구분한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나누는 중국음운학

의 이분체계²⁾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이분체계가 우리말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절을 더 세분화하여 초성·중성·종성으로 구분하는 삼분체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중 중성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같이 쓰기로 하였는데, 속기키보드에 같은 자음이 두 개씩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훈민정음의 기본 제자원리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글자를 실제 적을 때는 하나의 글자로 합해 적게 하였다는 것이다.

1)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일소리의 단위. 열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예를 들어 '강[kang]'은 성모[ㄱ]와 운모[ang]로 나눌 수 있다.

한글의 '하늘, 땅, 별'과 영어의 'sky, land, star'를 한번 비교해 보자. 두 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표기방식이다. 한글은 한 음절 단위로 초성·중성·종성을 모아쓰는 방식인 반면, 영어는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만약 한글을 영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하늘', '땅', '별'은 각각 'ㅎㄷㄴ-ㄹ', 'ㅌㅌㅇ', 'ㅂㅆㄹ'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이 채택한 모아쓰기 방식은 음절과 글자를 일치시켜 가독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모두 가능하고 공간 활용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모아쓰기 방식은 알파벳과 유난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매우 창의적인 창조 불임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³⁾

훈민정음의 기본 제자원리,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고 이를 적을 때는 합하여 적는다.

속기키보드의 자판 구성은 이 훈민정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착안한 듯 보인다. 자판을 초성·중성·종성으로 구분하여 가운데 아래에 위치한 중성(모음)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초성을, 오른쪽에는 종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초성·중성·종성을 함께 누르는 게 컴퓨터속기의 가장 기본원리이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단어를 일반키보드로 적는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왼손 검지로 's'을 누르고 다음에 오른손 중지로 'n' 그다음에 다시 왼손 약지로 'l'을 눌러 '산'이라는 한 글자를 만든다. 반면 속기키보드는 's', 'n', 'l'을

동시에 눌러 '산'이라는 글자를 만든다. 즉 일반키보드로 '산'을 적으려면 총 세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속기키보드는 단 한 번에 글자를 완성할 수 있다.

2. 자음 만들기

세종대왕은 자음을 발음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이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자음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자음 'ㄴ'과 'ㄷ'은 같은 발음기관을 사용하여 입 안의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데 'ㄷ'이 'ㄴ'보다 소리가 약간 더 강하다. 그래서 'ㄴ'에 획을 하나 더해 'ㄷ'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ㄷ'에 획을 하나 더해 'ㅌ'을 만들었다.⁴⁾ 이 같은 방법을 가획의 원리라고 한다.

속기키보드에서 이 가획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자음 19개 중에서 속기키보드에 없는 자음이 있다. 바로 된소리와 거센소리이다.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초성에 각각 'ㅇ'과 'ㅎ'을 함께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 'ㅌ'은 'ㄷ'과 'ㅇ'을 함께 누르면 되고, 'ㅌ'은 'ㄷ'과 'ㅎ'을 함께 누르면 된다. 즉, 'ㅇ'과 'ㅎ'이 기본 초성과 같은 계열의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받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훈민정음에서 획을 더해 비슷한 계열의 글자를 만들었다면 속기키보드에서는 자판을 더해 비슷한 계열의 글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하필 'ㅇ'과 'ㅎ'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3) 유재인, 「음소글자에 음절단위 쓰기로 영어보다 독서속도 강점」, 교육소식 86호(2002. 10. 5).

4) 국립국어원, 알고 싶은 한글, 2017.3.2., <http://www.korean.go.kr/hangeul/short/001.html>.

먼저 '오'와 '흥'은 친구이다. 앞에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른 자음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오'에 획을 하나 더한 글자가 'ㅎ'⁵⁾, 여기에 획을 하나 더 더한 글자가 '흥'이다. 이렇게 친구인 두 녀석 중 하나는 된소리를 만드는 데, 또 하나는 거센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다.

가획의 원리				
ㄱ	→	ㅋ		
ㄴ	→	ㄷ	→	ㅌ
ㄹ	→	ㅂ	→	ㅃ
ㅅ	→	ㅈ	→	ㅉ
ㅇ	→	ㆁ	→	ㆁ

위의 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된 글자를 정리해 본 것이다. '흥'은 'ㅋ, ㅌ, ㅃ, ㅉ'와 같이 기본 초성에 두 번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물론 'ㅎ'이 거센소리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가획의 원리를 적용시켜 봤을 때 'ㅎ'과 'ㅋ, ㅌ, ㅃ, ㅉ'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 때문에 '흥'을 거센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오'은?

사실 '오'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결과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5) 여린혀를 또는 원이음이라고 불리며 「훈민정음」의 기본 문자 중의 하나인 후음 '오'에 획을 하나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세조 때 쓰다가 사라졌다.

첫째, '오'는 '흥'과 친구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다.
둘째, '오'는 초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3. 특별한 초성 '오'

속기키보드로 '아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배운 원리대로 하면 초성의 '오'와 중성의 'ㅣ'를 함께 눌러 '아'를, 초성의 '오'와 중성의 'ㅣ'를 눌러 '이'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다른 초성과 달리 따로 초성을 누르지 않고 모음만 누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는 중성 'ㅣ'와 'ㅣ'를, '우유'는 중성 'ㅣ'와 'ㅣ'를 누르면 된다. 즉 '오'를 초성으로 하는 글자는 모음만 누르면 알아서 '오'이 자리를 채워 글자가 완성된다. 앞에서 초성 '오'이 된소리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로 '오'이 초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에서의 초성 '오' 역시 다른 초성과 달리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만 해도 초성의 '오'와 중성의 '오'는 모양이 조금 달랐다. 초성은 지금과 같은 '오'를 썼지만 중성에는 옛이음이라고 하는 '오'를 썼는데 이렇게 구별해서 썼던 이유는 소리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쉽게 말하면 '아이', '어머니'의 초성 '오'는 본래 음가가 없어 'ㅣㅣ', 'ㅣㅣ'처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그곳에 '오'를 써서 빈 자리를 채워 주도록 한 것이다. 즉 '오'는 실질적 소리가 없는 형식적 자음이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터라 속기를 배우던 시절에도 초성이 '오'인 글자를

모음만 누르도록 한 것이 참 신기했었다.

혹시 속기키보드 창안자도 이런 배경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4. 모음 만들기

훈민정음의 기본 모음은 ‘·’, ‘ㅡ’, ‘ㅣ’이다. ‘·’는 하늘의 둥근 모양, ‘ㅡ’는 땅의 평평한 모양, ‘ㅣ’는 곳곳이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상징한다. 동양의 철학에서는 이 하늘, 땅, 사람을 3재(三才)라고 하여 만물의 근본 요소로 생각하는데 모음 글자를 만들 때 이 생각을 적용한 것이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도 기본 모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모음은 앞에서 설명한 ‘·’, ‘ㅡ’, ‘ㅣ’이고 나머지 모음은 이 세 글자를 적절히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를 ‘ㅡ’ 위에 쓰면 ‘고’, ‘·’를 ‘ㅡ’ 밑에 쓰면 ‘구’, ‘·’를 ‘ㅣ’ 오른쪽에 쓰면 ‘나’, ‘·’를 ‘ㅣ’ 왼쪽에 쓰면 ‘니’가 된다. ‘고’, ‘구’, ‘나’, ‘니’는 ‘·’를 두 번씩 썼다. ‘고’, ‘구’, ‘나’, ‘니’를 초출자, ‘고’, ‘구’, ‘나’, ‘니’를 재출자라고 한다.

속기키보드에서도 ‘·’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다. ‘*’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기능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기본 모음자와 함께 다른 파생 모음을 만드는 것이다. ‘·’, ‘ㅡ’, ‘ㅣ’를 기본자로 하고 있는 훈민정음과 달리 속기키보드에서는 ‘고’, ‘구’, ‘나’, ‘니’, ‘ㅣ’를 기본자로 하고 있지만 기본자와 ‘*’를 함께 눌러 다른 모음을 만든다는 점에서 그 원리는 같다.

속기키보드는 훈민정음의 초출자를 기본으로 하여 초출자에 ‘*’을 함께 눌러 재출자를 만든다. 예를 들어 ‘나’와 ‘*’를 누르면 ‘나*’, ‘구’와 ‘*’를 누르면 ‘구*’가 된다. ‘고’와 ‘*’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다른 모음들도 살펴보자.

훈민정음에서 이중모음은 그 이중모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음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고’와 ‘나’를 결합하여 ‘고나’를 만들고 ‘구’와 ‘니’를 결합하여 ‘구니’를 만드는 식이다. 속기키보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게’, ‘개’, ‘나’, ‘귀’, ‘내’, ‘네’ 등을 만든다.

개인적으로 ‘ㅡ’, ‘ㅣ’, ‘*’는 속기키보드로 모음자를 배울 때 가장 힘든 글자였다. 특히나 ‘ㅣ’, ‘*’는 여간 헛갈리는 게 아니다. 위와 같은 원리로 본다면 ‘ㅣ’는 ‘나’, ‘*’, ‘니’를, ‘*’는 ‘니’, ‘*’, ‘니’를 함께 눌러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나’, ‘*’, ‘니’ 3개 자판을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짧은 엄지손가락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되겠지만 가끔은 예외를 두는 게 더 쉬운 법.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ㅣ’에서 위치를 살짝 바꿔 ‘*’를 만드는 것이다.

잠시 삼천포로 빠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속기학원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헛갈려 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가르쳐 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것이 ‘안, 밖’의 원칙이었다. ‘ㅣ’는 안쪽에 작대기가, ‘*’는 바깥쪽에 작대기가 있으니 속기키보드에서 오른손은 ‘구’를 제외한 자판을 하나씩, 왼손은 두 개씩 짝을 지어 안쪽, 바깥쪽을 누르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ㅡ’는 훈민정음에서 기본자로 사용할 만큼 빈번하게 나오는 모음이지만 속기 키보드에서는 기본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속기키보드에서 ‘ㅡ’는 ‘ㅏ’와 ‘ㅑ’를 함께 누르면 되는데 왜 두 모음을 함께 누르면 ‘ㅡ’가 되는지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해 다른 모음보다는 조금 해봤던 기억이 난다.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게 답이다.

물론 ‘ㅡ, ㅑ’라는 예외도 있지만 이처럼 기본자를 적절히 합쳐 다른 모음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그 기본원리는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매우 비슷하다.

- 마치며

‘만약 한글이 없다면……?’이라는 물음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은 너무나도 영동한 상상 같지만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 문자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 시대에는 지극히도 당연했던 하늘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川’이라고 쓰며 ‘천’이라고 읽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우리 선조들이 겪은 문자생활의 어려움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백성들의 고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한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내 직업을 만들어 주신 은인이시니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잘못된 정보일지도 모르겠으나 국회에 입사해 신입연수교육차 방문한 일본 중의원에서 일본의 가나문자는 컴퓨터속기를 만들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컴퓨터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속기 또한 컴퓨터속기로의 변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일본 고유의 속기키보드를 개발하지 못했다.⁶⁾ 일본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 시스템 개발에 힘썼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처음 속기키보드가 개발되어 계속해서 신기종을 출시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컴퓨터속기는 국회, 의회, 검찰, 법원 등 관공서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교육속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속기사의 실력은 2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인터스테 노 국제속기경진대회에서 여러 차례 높은 성적을 거둘 만큼 이미 세계에서 인정

6)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컴퓨터속기 활성화는 한글 덕분, 2017.3.20., http://www.smartsteno.org/news_1/3180.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속기경진대회에서는 2위와 3위 동시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다시 한 번 세계에 우리나라 속기사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속기가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우수한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석학들이 극찬하고 있는 우리 한글의 가치를 정작 그 문자를 쓰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늘상 곁에 있는 것일수록 소홀해지기 마련이지만 또 늘상 곁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가 속기를 배울 때 도움이 되고자 한글과 속기를 연관지어 본 결과물이다. 여러분들도 '이건 왜?'라는 의문을 마음껏 품어 보고 그 나름의 해답도 구해 보자. 우리 한글과 속기에 대한 사랑이 점차 커질 것이다.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펼치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내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나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예의(例義)편 서문

〈참고 문헌〉

이성진, 『우리말 한글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한솜미디어, 2015.
김슬옹, 『세종, 한글로 세상을 바꾸다』, 창비, 2013.
박영준 외, 『우리말의 수수께끼』, 김영사, 2002.
유재인, 「음소글자에 음절단위 쓰기로 영어보다 독서속도 강점」, 교육소식 86호(2002, 10, 5).
국립국어원, 알고 싶은 한글, <http://www.korean.go.kr/hangeul/short/001.html>, 국립국어원, 2017.
국어문화학교, 훈민정음의 이해, <http://edu.korean.go.kr/>, 국립국어원, 2017.

같은 듯 다른 속기학술세미나의 모습

양 세 희



‘크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만약 10~30대의 여성이라면 화장품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화장에 관심이 없는 10대~20대의 남성이라면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를 떠올릴지 모른다. 제과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빵이나 케이크를 장식하는 크림을 떠올릴 것이고, 아침마다 면도하는 남성이라면 면도 크림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많은 이미지를 이끌어 낸다.

전국의 속기사들은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마다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국회 입사 전과 국회 입사 후에 세미나에 참가했기 때문에 조금은 색다른(?) 관점에서 세미나의 이미지를 그려보고자 한다. (입사 전에는 인천속기학원생 신분으로 2012년 제20회 세미나에 참석했었고, 입사 후에는 신입 국회속기사 겸 선발대로 2016년 제24회 세미나에 참석했었다.)

우선 세미나로 향하는 길은 학원생 때나 신입 때나 언제나 설레었다. 학원생 때는 대학교 엘티마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겼다면, 선발대 겸 신입으로서의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주어진 일을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2012 세미나 장소는 안면도 리솜 오션캐슬이었는데 숙소에서 바라본 서해 앞 바다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숙소에 개인 짐을 풀고 바닷가에서 콧바람을 쐬 후 방을 같이 쓰는 학원생들끼리 서로 킁킁대며 수다삼매경에 빠졌다. 2016 세미나는 선발대 겸 신입이라 경치고 뭐고 일단 차에 싣고 온 세미나 관련 물품들을 재빠르게 옮기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가 마무리될 즈음 원로 속기사분들을 포함하여 회원분들이 하나둘씩 정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선발대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나의 역할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세미나 기념품, ‘안녕, 우리말’ 소책자와 메모지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녕 우리말을 홍보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펴내고 있는 언어개선운동인 안녕 우리말입니다. 홍보 소책자와 메모지를 받아 가시고 언어개선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김경재 선배님께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시범을 보여 주셨다. 이 긴 문장을 또박또박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며 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꺼번에 물러 들어오는 회원분들이 보이자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 문장에 구멍을 내면서 “문체부 언어개선운동 안녕 우리말입니다, 동참해 주세요!”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메모지에 그려진, 안녕 우리말 로고인 윈크 미소라도 있었다면 메시지 전달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원생들이 들어올 때 나를 보더니 “어머머, 유명하신 분이요. 연예인 같아요.”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나의 국회 합격 후기와 사진을 보고 반가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나도 속기를 배울 때 동기부여 삼아 포털사이트에 '국회속기사'를 자주 검색하면서 선배님들의 얼굴을 자주 보았었다. 그렇게 얼굴을 익힌 선배님들은 합격 후 실제로 보았을 때 정말 연예인처럼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그런 뜻에서 학생분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하지 않았나 싶다.

세미나 발표에서도 느낀 점이 학원생과 신입 때가 달랐던 것 같다.

2012 세미나에는 김대현 전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회의록으로 살펴본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해 강의를 하셨다. 그러다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가, 입법기관인가?"라는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셨는데 그 질문을 받은 국회속기사께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므로 행정기관입니다"라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답을 하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총명한 국회속기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016 세미나는 이사장님의 개회사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먼저 내빈들의 인사가 있는 후 장대섭 전 의사국장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있었다.

초반부에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인 5월 30일과 국회개원기념일인 5월 31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임기개시일은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 최초 집회일이 1988년 5월 30일이었으므로 5월 30일이고, 국회개원기념일은 제헌국회가 5월 31일에 개원하여 그날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외에도 원 구성과 상이한 성격의 부처가 합쳐져 있는, 예를 들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위원회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선진화법 개정안 등 시사적인 내용들을 언급해 주셔서 흥미롭게 국장님의 발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송진희 컨설팅 대표께서 자아 상태 진단테스트를 통해 자기가 어떤 유형(성장·주도·논리·관계·변화형)인지 파악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유쾌하게 강의를 해 주셨다.

회원분들께서 얼마나 재밌게 발표를 들으셨는지 잠깐 화장실에 갔을 때 그곳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2012년 때는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야 했고 어색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저녁식사 후에 방에서 다양한 속기사분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미래의 속기사로서 이 행사에 녹아드는 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술과 안주가 제때 채워지는 것이었다. 그 비밀은 선발대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그 술과 안주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회원분들의 입맛에 맞는 안주일까, 술은 적당히 있을까 걱정하면서 모든 것에 신경을 쓰시는 협회 임원 선배님들 덕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배운 것은 안주 배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었다! 회의록 작성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속성과 정확성이 이때도 필요한 순간이었다.

2016 세미나 발표가 끝나고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만찬장 1층 모디토리움으로

향했다. 선발대라서 먼저 선배님들과 회원분들께서 편안하고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린 후 자리를 잡아 저녁을 먹었는데 노동 후의 밥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전국의 속기사들이 게임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화합의 마당이 펼쳐졌다. 인천속기학원생의 노련하고 재치 있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으로 분위기가 들쭉들쭉했다. 덕분에 선배님들과 동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의회속기사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렇게 정신없는 첫째 날이 지나갔다. 둘째 날의 일정은 한껏 고양되어 있는 마음을 차분하게 식혀 줄 수 있는 유명산 둘레길 트레킹이었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녹음이 짙은 숲 속에서 산책하고 돌아오시는 회원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이것으로 선발대의 임무는 끝이 났다.

이처럼 나에게 세미나의 이미지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해 있다. 입사 전 세미나에서는 국회속기사의 꿈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었고, 입사 후에는 국회속기사로써 더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해 준 차가움이 있었다. 앞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미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된다.



인생에서 매우 값진 것

김 보 라

안녕하십니까.

새내기 국회 속기사 김보라입니다.

2013년 겨울, 한국스마트속기협회에서 주최하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 국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합격해서 이곳에 꼭 다시 오리라 마음 먹고 본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그 사진을 보



면서 '이게 내 인생에서 한낱 사진으로만 남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현실이 되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1. 속기를 시작한 계기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속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8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제서야 진지하게 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진로·적성 검사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속기사로 진로

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2. 국회 속기사가 되기까지

처음 속기 공부를 할 때에는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속기가 저의 적성이어야 했고 저의 재능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기를 배우면서 '재능'이라는 것은 적게 노력해서 크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2급 취득 후 녹취록 작성, 법원 아르바이트, 교육 속기, 의회 속기 등을 하면서 어느 쪽이 저와 잘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교육 속기와 의회 속기를 할 때 업무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근무했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성·아동 복지, 일자리 문제, 재개발 등 사회적 이슈들을 속기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고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국회 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같이 일했던 분들이 모두 공무원이어서 자극이 많이 되었고 그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체력적으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한약을 챙겨 먹게 되었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시험 준비를 할 때에는 엑셀파일로 낭독별로 수정 전 정확도와 수정 후의 정확도를 기록하면서 연습했습니다. 후에 실기시험 점수를 보니 평소 연습했을 때의 정확도 평균치와 유사했었습니다. 시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연습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국회 합격 커트라인 점수보다 3% 정도 기준을 높게 잡고 연습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실기시험을 같이 합격했던 수험생과 주말에 따로 만나서 모의면접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같이 다듬어 가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후에 그 친구와 같이 합격하게 돼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최종 합격 소식은 의회에서 회의를 속기하는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과 주사님께서 알려 주셨는데 모두들 마음 써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각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저는 제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게 온전히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굉장히 자만했던 것입니다. '겸손하라'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 돌고 돌아 지금에서야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서 국회 속기사로서 자부심은 갖되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88만 원 세대, 비정규직, 공시생……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이 모든 상황들을 겪고 나니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개선하는 곳이 국회이고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를 진심을 다해 속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국회 속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값진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겸손' 그리고 '사회적 공감'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새내기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국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보 람

꿈을 만나다.

대학교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꿈을 찾는 탐험의 시간이었습니다. 흥미 있는 일들은 많았지만 선뜻 도전하기에 두려움이 앞섰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수님의 논문 작업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자도 빠르고 문장 정리도 깔끔하게 잘한다며 교수님께서 '속기사를 하면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속기사? 생소한 직업이었기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현대판 사관'. 하지만 그 다섯 글자에 다 담을 수 없는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게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한 가지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 저에게 속기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에 과거를 남기는 너무나 매력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다.

다른 여러 가지의 일에 관심도 가져 보고 배워도 봤지만 쉽게 흥미를 잃었고, 꾸준하지 못했었는데 속기만은 달랐습니다. 운지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조금씩 무료함을 느낄 때쯤 약어의 세계에 빠지면서 다시 속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점차 속도가 늘어 가는 걸 몸소 느끼면서 더 즐겁고 더 신

나게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 끝에 2013년 상반기 시험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해 10월 중앙일보에서 속기사로서의 첫 출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의 저의 업무는 국회 내 회의를 속기해서 기사 자료로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을 때면 비교적 한가했지만 회의가 있을 때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속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얻은 것이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야 알았지만 행정학 공부를 하며 글로 보았던 국회의 운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속기까지 해 보았기에 더 쉽고 친근하게 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의 운영을 겪어 봤던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속기사로 일하다 국회시험에 합격해 국회 속기사로 계신 선배님이 저보다 앞서 두 분이나 계셨는데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 선배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두 분 선배님과 같이 일해 보셨던 기자님 한 분께서 '중앙일보에 있다가 국회에 간 선배들은 다 예뻐했는데……'라며 제 얼굴을 훑어져라 쳐다보셔서 잠시 잠깐 포기해야 하나 싶은 고민이 들긴 했지만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틈틈이 자주 7층에 올라와 '의정기록1과', '의정기록2과'라고 적힌 사무실들 앞을 거닐다 보니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녕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여기에 있고 싶다는 설렘과 의욕이 넘쳐 나기만 했습니다. 중앙일보를 퇴사하고 도서관에서 필기공부를 할 때도 가만히 눈을 감고 매일같이 걸었던 국회 본청 7층을 머릿속으

로 떠올리면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국회 속기사의 매력에 빠져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이루다.

2013년 10월, 2년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앙일보에서 퇴사하고 국회 속기사의 꿈을 위해 필기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는 다졌지만,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생소한 행정학이나 봐도봐도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할 때면 지치기도 했지만,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졌던 한국사나 판례 하나하나가 흥미로웠던 헌법 공부를 할 때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기 준비 과정이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국스마트속기협회를 통해 교육속기나 재개발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받아 하기도 했고,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 작성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잘

치는 것만큼이나 잘 듣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요즘 더 값

지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필기 공부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까먹은 시간이 많으니 더 집중하게 되어 질적인 능률성은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 속기사,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꿈을 살다.

임용 100일을 며칠 앞둔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야근을 하는 것도 그저 재미있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즐거우며, 제가 만든 회의록을 볼 때면 때면 감격스럽습니다. 한 줄 한 줄 업무일지가 채워질 때마다 행복도 채워지는 기분이고, 아침 출근길도 마냥 신이 납니다. 중앙일보 다닐 때는 늘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국회 경내에 들어올 때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며 의경이 막아서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는데, 국회에 입사한 이후로는 깔끔하게 잘 차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니 국회 출입이 무척이나 자유로워져 국회에 들어설 때마다 '내가 진짜 국회 속기사가 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도 합니다.

'꿈을 꾸다 그 꿈이 손에 들어오면 직업이 되고, 직업은 일상이 되고, 그렇게 있고 살아간다. 내가 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인터넷에서 보고 크게 감명 받아 책상에도 따로 메모해 놓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늘 행복하기만 하고, 늘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이 글을 곱씹으며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꿈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다 보면 다 된다

정 우 민

2011년 군대 전역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속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솔직히 속기사라는 직업을 처음 들어서 낯설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었다. 그래서 검색을 해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속기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역사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서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속기사라는 직업은 더욱 흥미를 자극했다.

속기사가 활동하는 분야는 자막방송이나 속기사무소, 의회 등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속기사의 꽃이라는 별칭이 붙은 국회속기사가 되고 싶었다. 처음에는 학원을 다녀 볼까 알아봤지만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처음에는 한 음절을 치는 것도 키보드를 보며 겨우겨우 쳤었는데 집에 있는 동안 몇 시간이고 속기 연습만 하니 점차 빠른 낭독자료를 듣고 속기를 할 수 있었다.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며 진도를 나가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나 처음 시험장에 갔다. 속기를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1년 안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는데 아직은 실력이 안 돼서 3급 시험만 응시했다. 결과는 다행히 합격이었고 3급으로는 부족하기에 시험이 끝나고 바로 1급 시험을 준비했다. 같은 해 2차 시험에서 1급과 2급 시험을 치렀고 마침내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멋모르고 '이제 나는 1급 속기사니까 어딜 가든 일

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경력이 없다고 일을 안 시켜 줬다. 일을 하지 못해 낙심하던 중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연수 기회가 생겼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일반속기 연수와 자막방송 연수를 받았고 영광스럽게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수료했다. 그 뒤에는 협회의 추천으로 속기사무소에서 몇 번씩 출장속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속기사로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만 애초에 최종 목표는 국회속기사가 되는 것이었기에 이렇게 해서는 몇 년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결국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수까지 수료해 놓고 뷔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갔다. 거울에 비쳐진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엄청난 회의감이 들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던 중에 운 좋게도 의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생겨 속기사로서 조금 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의회에서의 회의록 작성 업무는 나중에 국회에 가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근무지는 집에서 왕복 4시간 거리였지만 집 근처에서 출퇴근했던 설거지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제 좀 속기사 같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조금의 경험도 쌓고 돈도 알뜰히 모으다 보니 1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하기에 충분한 생활비가 모아졌고 2014년 여름 끝 무렵에 필기 공부를 시작했다.

필기 공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수강하며 집에서 공부했다. 헌법이나 행정학 같은 처음 접하는 과목도 있고 평소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국어나 국사조차 시험공부로 하러니 처음에는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때는 뭐가 그리 조금했는지 공부 시작하고 1년 정도 후인 첫 시험에 바로 합격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컸

다. 평소에 공부와도 친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그런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무작정 이론 강의를 듣고 달달 외우려고만 하니 시험 날짜가 다가와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느낌이었다. 결국 수험생활 하는 기간 동안 쓰러고 모은 돈도 시험 날에 맞춰 거의 다 쓰고 시험도 낙방했다.

이렇게 또 계획이 틀어졌다. 불합격해서 아쉬움도 컸지만 오히려 1차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년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해 나갔다.

이번에 공부할 때는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돌아보고 파악했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강의를 다시 들어보며 천천히 이해를 하려고 했다. 그래도 작년에 공부했던 것들이라 그런지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용이해지지 알려 주는 내용이 전보다 많이 익숙했다. 초반에는 가장 부족하다 느낀 영어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했고 갈수록 하루에 12~13시간씩 다섯 과목을 골고루 시간 배분해서 공부했다. 기출문제와 더불어 모의고사를 풀어도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는 걸 보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매일 독서실에 다니며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2016년 필기시험 날이 다가왔다.

작년에도 절박한 심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시험장에서 긴장이 됐다. 작년에 두 번의 마킹 실수를 했던 것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더욱 떨린 것 같다. 다행히 이번에는 마킹 실수 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느껴져서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떨어지면 과연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싶었다. 조마조마하며 그날 저녁에 가담안을 확인해 봤는데 점수를 보니 안심이 됐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이제 필기시험은 치렀으니 결과가 어찌됐든 빨리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했다. 실기연습 또한 인터넷에 있는 낭독파일을 듣거나 직접 녹음을 해서 연습했다. 그동안 필기공부를 하며 속기 키보드는 꺼내지도 않았기에 예전에 충분히 익혀 뒀던 약어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고 손가락은 자꾸만 뇌의 명령을 거부해서 오타도 나고 단기간에 감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다.

조금씩 실력을 끌어올리며 하루하루 정신없이 실기 연습만 하며 지내다 보니 금방 실기시험 치르는 날이 됐다.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기세등등하게 시험장에 갔다. 오히려 실기시험이 필기시험보다 덜 떨렸다.

속기 실력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자신감만 믿고 치렀던 2차 관문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으니 마지막 면접만 잘 보면 그토록 원하던 국회속기사가 된다. 처음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필기나 실기보다 면접이 제일 걱정됐다. 여기서 떨어지면 작년에 필기시험 낙방했을 때보다 충격이 몇 배는 더 클 것이기에 필기·실기 못지않게 철저히 준비했다. 준비를 하며 국회의 기능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것을 평소보다 더 완벽히 숙지하려 노력했고 최근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들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비해서는 과장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적어 가며 정리했다.

면접 날짜가 다가왔고 오전에 미리 국회의사당역에 왔다.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면접 한 시간 전에 국회 본관으로 향했다.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직 면접도 안 끝났는데 '이제 곧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설렘은 잊을 수가 없다.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졌으면 그 설렘은 혼자 설레발을 친 것이었을 텐데 면접 질문도 대체로 무난

했고 면접관님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답변도 더욱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 한 번의 NG도 없이 만족스럽게 면접을 치르고 나오니 정말로 곧 국회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결과 발표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져서 5분 간격으로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다. 오후가 돼서야 결과가 나왔는데 내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리를 질렀다. 처음 국회속기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지 약 4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노력한 것을 생각하니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하다 보면 다 된다'는 말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것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끼고 뿌듯했다.

2016년 11월 7일, 나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다. 드디어 국회속기사로써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4주간의 실무교육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국회로 출근한다는 것이 얼떨떨하고 다른 직렬 동기들과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 같이 회식도 하며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 30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로예약을 함께 겪을 동기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니 3주 차에 있었던 3박 4일의 상해 연수도 짧게 느껴지고 4주의 기간 또한 순식간에 지나갔다.

신임실무자 과정 수료 후 부서 배치를 받고 출근을 하니 조금 더 국회속기사라는 게 실감이 났다. 배치 받고 두 달 정도는 회의도 많고 선배님께 이것저것 배우며 적응해 나갔다.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국회 본관을 돌아보니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고 야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직장인이 된 것 같아서 밤늦게 퇴근해도 마냥 신나고 뿌듯했다.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번 들어갔다 해도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이 더 많고 선

배님들에 비해 실력도 한없이 부족하기에 처음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다짐하던 그때의 열정을 잃지 않고 신입다운 자세로 열심히 배워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수험생활을 하며 여러 사람에게 힘이 되는 조언을 듣거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2016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홍보부

I. 연수 개요

- 가. 수료 인원: 71명(42개 의회)
- 나. 연수 기간: 5.25.(수)~5.27.(금) [3일, 18시간]
- 다. 연수 장소: 국회 의정관 105호실
- 라. 연수 일정

날짜 시간	5. 25.(수)	5. 26.(목)	5. 27.(금)
09:30 ~ 11:50	등록 및 입교식 (09:50) 특 강 -지방의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경식 (현)대한속기협회 부회장	회의록 작성실무 I -사례를 중심으로- 이동준 국회 의정기록과 사무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변화와 속기 윤태원 (주)제윤 대표
12:00 ~ 13:30	점 심		
13:30 ~ 15:20	기록관리의 이해 김장환 기록보존소 기록연구원	현대인과 스트레스 최은미 (사)국제웃음치료협회 부회장	회의록 작성실무 II 장미경 국회 의정기록과 사무관
15:40 ~ 17:30	한글 맞춤법 박종덕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참 관 -헌정기념관(16:00~) -국회의사당(17:00~)	수료식 (15:30~)

1. 지방의회 교육 1일 차(5월 25일)

지방의회 교육 1일 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지방의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한속기협회 이경식 부회장의 강리가 있었고, 오후에는 김장환 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의 '기록관리의 이해'에 대한 강의와 박종덕 국립국어원 전문위원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강리가 있었습니다.



2. 지방의회 교육 2일 차(5월 26일)

지방의회 교육 2일 차에는 오전, 오후 두 번의 강의와 참관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동준 사무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회의록 작성실무 I'의 강리가 있었고, 오후에는 국제웃음치료협회 최은미 부회장의 '현대인과 스트레스'라는 주제의 강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국회 헌정기념관 참관을 하였습니다.



3. 지방의회 교육 3일 차(5월 27일)

지방의회 교육 3일 차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변화와 속기'에 대한 주제로 (주)제윤윤태원 대표의 강의와 장미경 사무관의 회의록 작성실무Ⅱ 강의 그리고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II. 향후 본 과정에 추가했으면 하는 과목

- 사례 중심의 회의록 작성 실무(돌발상황, 비공개회의 속기 등)
- 의사국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
- 속기사와의 대화(국회 의정기록과 참관)
- 교육생들 간 소개의 시간 및 대화의 시간
- 각 지방의회 간 토론의 시간
- 인문학 강의(최진기 강사)
- 스트레칭, 마사지 등 건강 관련 교육

III.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

- 한글 맞춤법 교육 및 회의록 작성 실무 시간 연장
- 실무 사례 중심의 교육 연장

- 지방에서 올라오는 연수생들을 배려해 첫날 입교식 시간 조정
- 국회속기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지방의회 속기 실무자 위주의 교육
- 고비용의 교육비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참석이 불가해지는 사례의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교육비 산출의 재고

IV. 자체평가

- 올해는 작년 연수 장소였던 헌정기념관 대강당과 달리 연수 장소를 국회 의정관 105호실에서 실시함으로써 너무 큰 연수 공간의 산만함과 집행부 수용 가능 인원 초과와 단점을 보완하였으므로 향후 연수 계획 단계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에서 적절한 인원이 짜임새 있고 집약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올해 연수 과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어문화 개선운동사업 동참의 일환으로 '안녕 우리말' 운동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말을 기록하는 속기사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
- 3일간 밀도 있게 진행되는 본 연수과정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물품대의 지출 등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함.

색다른 속기사 제주법원 원희승 속기사 인터뷰

김민아 기자



속기사는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의회, 법원을 비롯하여 각 행정부처 및 자막방송을 시작으로 사기업에서도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부 아이디어 회의 도중 특이한 곳에서 일하는 속기사는 누가 있을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흔하고 정말 평범한 법원 속기사. 그러나 제주법원에 근무하는 남자 속기사. 이렇게 지역이 달라지고 성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제주법원에 6년째 근무 중인 원희승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속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남자는 군대에 다녀와야 철이 든다고 합니다. 저 또한 군 제대를 한 후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속기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바로바로 문서화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

큰 결심을 안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 여름, 속기사가 되고픈 열정 하나만 갖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연고 하나 없는 타지생활이었기에 오로지 속기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10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으로 자막방송센터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자막방송센터에서 2년여간의 실무경험과 이후 속기학원 교육강사 경험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속기사로써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자막방송센터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속기실력 향상과 함께 속기사가 갖춰야 할 신속성, 정확성,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EBS교육방송 사회 과목에 자막을 입력하는 작업과 KT 전화상담 녹취, 재개발과 관련된 출장 녹취 업무 등 다양한 유형의 녹취를 통해 속기업무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1년간 영등포속기학원에서 교육강사로 일할 때는 잠시 잊고 있었던 속기에 대한 열정과 패기를 오히려 수강생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막방송 속기사 경력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TV 프로그램 내용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 뉴스나 드라마, 쇼프로그램 등 모든 방송 내용을 속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면 그와 동시에 TV 화면에 자막이 전송됩니다. 자막방송은 40만 명의 청각장애인과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귀가 되어 줌으로써 시청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막방송 일은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몇 년간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 고향에 대한 향수가 컸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잠시나마 속기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속기가 천직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후 다시 서울로 올라가 속기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제주법원에 합격했습니다.

여러 직종 중 법원 속기사에 지원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법원 속기사에 대한 선망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로서 사회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법원은 일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에 더욱더 제주법원에 대한 애착이 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속기록이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기록으로 후대에 남는다는 게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속기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해서 증인신문조서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재판 내용을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 속기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속기사에게 여러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속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신속성,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거짓 없이 글로 담아내는 정확성,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집중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속기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점은 속기 자체가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터치 없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전화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민원 스트레스가 없고요. 일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속기록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러 사건들을 겪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또 법원 내부적으로는 직장이라는 계급사회 이기는 하나 수직구조라기보다는 수평구조이기 때문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소통이 잘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음... 이견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사기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돼요. 또 재판이 길어지거나 할 경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제가 담배를 끊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2012년 7월에 발생한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났고 속기록 분량으로는 120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참여재판보다 2배가량 많은 분량이에요.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이 동네 주민에게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주법원의 속기사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필속기사는 없고 민사과 4명, 형사과 1명,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1명으로 총정원은 6명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크게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으로 나뉘지며, 광주와 전주에는 지원이 있지만 제주도는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형사와 민사 업무 구분 없이 속기사 한 명당 평균 3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습니다.(본인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민사1단독, 형사4단독을 맡고 있음)

속기록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 과정을 신속·정확하게 문서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유독 여성 속기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으나 법원에서만큼은 좀 무색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백 명의 법원 속기사 중 남성 속기사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요.(정확히 몇 명의 남성 속기사가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기사 채용공고를 보면 담당업무에 '속기 및 사무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속기 외에 다른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기사로 채용돼서 과에 배정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부속실(판사실)로 배정될 경우에는 속기 본연의 업무 외에도 판사님에 대한 비서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 속기사를 부속실로 안 보내면 되겠지만 인사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설령 남자 속기사가 부속실 업무를 한다고 한들 비서 역할을 못 할 게 뭐가 있나요? 저 또한 그렇듯이 이미 법원에 지원한 것 자체가 그런 걸 다 감수하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법원 내에서도 이러한 고정관념들이 점차 깨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성 속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편 다른 이유로는 속기를 준비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고는 있으나 국회나 의회 등에 관심이 있는 반면 법원에 지원하는 남성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여성 지원자가 훨씬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여성 속기사가 많이 채용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남성과 여성이 50:50 비율로 법원에 지원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남성 속기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법원을 목표로 하는 남성 속기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실 입사 초기에는 '여성들 영역에 괜히 발을 내밀었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니 법원 속기사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들도 충분히 꼼꼼하게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체력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더 큰 강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법원 속기사만큼은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남성을 안 뽑는 것은 아닙니다.

1급 속기자격을 힘들게 취득했음에도 취업 문턱은 여간 높은 게 아닙니다. 문턱을 넘지 못할 때마다 '속기를 왜 했나' 하는 회의감이 들고 의욕마저 떨어지기 쉬우나 포기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 우물(제주지방법원)만 댔는데 1년에 한 번꼴로 4년간 계속 제주

지방법원만 지원했었습니다. 4수를 할 때는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일념으로 속기 실기시험과 면접 준비에 한 달 동안 매진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한 달 만에 5kg나 빠졌었죠. 이렇게 독기를 가지고 임하다 보니까 꿈에 그리던 법원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면접에 10번 떨어진다면 남성의 경우 20번은 떨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실패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나를 좌절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와 친해지십시오. 그리고 극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속기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과정을 먼저 잘 마무리해서 본인 역량으로써 임원의 효율성과 능동성을 기할 수 있고, 향후 동경한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기영역 확대의 새 지평을 열어 가고 있는 교육속기의 선구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육속기사

강 병 호

(한국복지대학교 교수학습 장애학생지원센터장 / 전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협의회 회장)



속기사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만나러 왔는데요. 보고 싶어요. 최고예요. 너무 고마워요. 상담받으러 왔어요. 우리 옆에 꼭 계시어야 해요. 제가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은 다 우리 선생님 덕분에……

학교 재학 중 도움을 받은 졸업생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내고, 재학생 중 쉬는 시간에, 방학 중에도 달려와서 너무 반가워하고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속기 지원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수요자인 장애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지원을 위해 애정과 감정, 라포 형성이 되어 속기 지원이 되어서 그럴 것이다.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본인 수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바, 생동감 있고 철저한 준비와 교수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하여 장애학생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등이 인정되어 교육속기사의직의 안정화 및 최근에는 학교 직제상 공식화된 팀장 역할까지 하고 있어 교육속기 지원 극대화를 위해 학교의

종합적인 틀 속에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여러분 '교육속기'는 무엇일까요? '교육속기사'는? '한국복지대학교'는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2002년 한국복지대학교 개교 때부터 장애학생을 지원하면서 '교육속기'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청각장애 학생 등에게 강의 이해와 강의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화하여 지원하는 것을 '교육속기'라 하였다.

그리고 '교육속기사'는 장애학생 요구와 특성에 맞춰서 강의내용을 이해해 교수자의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속기하여 요구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속기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속기사를 배치해서 수업 상황에서 속기가 교육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한국복지대학교가 시초이다.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장애인 특성화 특수목적대학으로 2002년 개교 이래 입학한 다양한 장애학생 중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이 소통 및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기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속기가 출발하는 새로운 분야의 선구적 계기가 되었다.

2002년에 정규 국가직 조교 직급으로 2명의 속기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속기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해가 갈수록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 지원에 있어 문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2017년 현재 정규직 8명과 계약직 14명 등 총 22명의 속기사가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학교 내 장애학생의 전문적 지원의 최상의 실천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 학생이 있는 전국 대학의 지원을 위해 속기사가 24명(계약직) 근무하고 있는 등 총 46명의 속기사가 근무하고 있다. 호응도가 높고 수요가 갈수록 높아져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속기 초기에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속기사가 대학에 배치되어 속기만으로 역할이 다 되지 않는바, 또 교육장에서 근무한 경험과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가 없는 등 대응하는 방법이나 교육장에서 녹아날 수 있는 속기기능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대상인 장애학생에 대한 요구와 특성에 대한 이해, 교수자 강의의 전달을 위한 관계 형성 및 철저한 수업 준비와 피드백 등을 통해 교육속기 영역이 안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이에 교육속기사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배정 학과목에 사전 학습이 되어 청취능력, 운필능력, 수문능력이 근간되어 최적의 지원과 피드백이 되고 있다.

교육속기사의 가장 주된 역할은 정규 수업지원으로 학기 초 배정된 지원 시간표에 따라 강의에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막지원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장애학생 지원 교육속기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교육속기사는 해당 교수로부터 차시 강의 내용을 전달받고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속기에 입하며 학생의 요구, 강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막 서비스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여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을 유도하고 그 질문을 받아 전달하는 활동도 한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 들은 용어들에 대해 강의자에게 확인한 후 강의 번문을 통해 강의 파일자료를 메일로 학생에게 발송한다.

그리고 학교 내의 장애학생 관련 프로그램 지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강의

교재 점역 기초자료 작성, 교내 주요 회의 지원, 외부 요청에 따른 교육속기 지원 등을 하기도 한다. 정규 수업이 주된 역할로 부가적인 역할은 장애인 교육속기의 인식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으로 정례적인 역할은 아니다.

교육속기 지원은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지원요구 신청을 토대로 정한 각 학과별 강의계획표를 참고하여 속기지원 시간표를 작성한다. 각각의 교육속기사는 자신이 배정받은 강의에 대한 학과, 학년, 과목, 담당교수, 시간, 장소를 파악한 후 강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교육속기 지원 절차는 첫째, 지원 신청 및 요구 파악 둘째, 지원시간표 작성 셋째, 속기지원(강의의 주교재 확보와 사전학습, 학생 파악 및 오리엔테이션, 교수에 대한 협조 요청, 속기 유형 및 좌석 배치 구성, 속기 장비 점검, 강의 중 속기, 강의 후 속기록 편집과 제공 및 보관) 넷째, 지원평가 다섯째, 피드백의 다섯 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의내용 및 상황, 환경에 따른 속기의 유형은 노트북 속기(일반강의실 1-3명 청각장애 학생), 메신저 속기(컴퓨터 실습 등), 스크린 속기(다수 청각장애 학생 및 강당), 듀얼모니터 속기(별도의 모니터 설치 4-6명 청각장애 학생), 원격 속기(원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상황을 학생이 갖고 있는 컴퓨터, 고성능 화상카메라와 교수자의 부착 마이크 등을 사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라인을 통해 원격속기지원실로 보내어지고, 이를 전문 교육속기사가 문자로 실시간 변환하여 다시 학생의 컴퓨터 모니터로 전송하여 읽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식으로 현재 전국 대학교 내의 청각장애 학생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등이 있다. 속기는 강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적·최상의 형태를 선택 지원하고 있다.

교육속기는 일반속기와 달리 강의자와 지원받는 학생, 지원하는 교육속기사 선생님의 관계 형성 및 소통 그리고 피드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첫째, 강의자인 교수는 적절한 속도의 언어 사용, 정확한 발음과 표준어 사용, 강의 중 휴식(연강 등 지양), 수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피드백, 교육속기사의 관리 협조(속기록 지원의 허락), 강의 내용의 이해 및 전달을 위한 풍부한 보충자료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속기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담당 교육속기사와 사전 면담, 자신에게 맞는 속기지원 방식 협의, 교육속기사에 대한 기본 예절 준수(지각, 결석, 질문, 속기록 등)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교육속기사는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강의 내용 전달을 위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지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부단한 노력,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사항 파악, 제공된 속기에 대한 피드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대학 내 교육속기 지원의 제도화 및 기반 구축을 긍정적이고 전망이 밝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입학지원이 꾸준하다는 것과 청각장애 학생의 지원 요구가 예년에는 수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가 갈수록 문자, 교육속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바, 전문화된 교육속기사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문자통역(속기) 및 교육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관련 법령(장애인차별법, 특수교육법: 편의 제공 의무 등) 등이 있어 저변 확대와 제도 안착에 근간이 되고 있다.

대학 내 청각장애인들의 문자 통역, 즉 속기지원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도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편화될 전망이며, 한국복지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전체 대학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끝으로 속기사의 양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 교육 장면에서 전문화된 속기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속기 양성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 자리매김이 되기 위해서 정규직의 확대와, 공무원 국가직에는 속기직이 없는바 직렬 확보 및 여기에 따르는 인원 확보가 중요하리라 보인다.

장애학생,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속기 지원을 위해서는 속기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함과 아울러 교육 분야의 속기 인력풀을 확보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복지대학교는 교육속기 및 속기사의 질 구가를 위해 관련 행사 참석(대한속기협회 세미나 2015.5.22: 강병호센터장 교육속기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유기적 협력 발표) 및 자료 개발(교육속기지원지침서, 2005: 원종례, 김주영, 강병호, 차은영 등)(청각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지침서, 2010: 원성욱, 강병호, 차은영 등)(장애대학생 교수학습지원 통합지침서, 2014: 강병호, 차은영 등) 및 안정적 자리매김을 위해 장기적으로 속기 직렬화 및 현재 교육속기직의 확대, 그리고 대한속기협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국가 차원의 법·제도의 안착화에 힘을 모아 장애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특히 대학에서 교육적 요구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50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18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최윤정 사업회원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철우 회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회장의 이석으로 이순영 이사장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단에 등단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후 회의는 회장을 대신하여 이순영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회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의장(대리)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6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회원이사의 결산서 설명과 감사(정상덕)의 감사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해 전 회원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은 후 이에 대해 전 회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현재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되어 있는 이사 수를 회장 1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3인 이내로

조정하는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음 네 번째 · 다섯 번째 의안인 임원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후 이미정 회원으로부터 임원과 감사선임 방법의 집행부의 복안을 들은 후 찬성하면 박수로써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듣고 의장으로부터 정성호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사장으로 안기철 회원, 부회장으로 이주성 · 권영찬 · 손재욱 · 김란희 · 조영기 회원 그리고 이사로 이순영 · 고경효 · 정순화 · 김덕진 · 이동준 · 한기수 · 정상덕 · 이철호 회원을 추대하고, 새로운 감사로 정란 · 김점동 회원을 추대하자는 집행부의 복안에 전 회원이 찬성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여섯 번째 부의안건 기타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6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0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새내기들의 희망찬 출발부터 행복한 속기인까지 속기쟁가 넘쳐나는 제53호 속기계입니다.

새로운 팀의 첫 작품이라 많이 긴장되고 내놓기 두렵습니다마는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홍보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보리라는 다짐을 해 보면서, 주말도 마다않고 취재와 편집에 수고해 준 우리 홍보부 부장과 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규진

올해는 남편과 만난 지 10년째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음... 저는 아마도 그 분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자꾸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냥 현재에 충실해야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기자영

몇 자 고적고적 써 내려가면 금세 또 새하얘지는 머릿속, 글쓰기와는 담쌓고 지내다 보니 몇 장 안 되는 글을 쓰면서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인 만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멋진 글솜씨를 뽐내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다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홍보부, 앞으로 고생스러운 날도 있겠지만 모두들 힘내고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부 파이팅!

- 정다운

처음 제 글을 실어 준 속기계는 신기함을, 후배들의 글을 담은 속기계는 흐뭇함을 주었다면 이번 속기계는 저에게 부딪힘이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그걸 당연한 듯 받아 보던 책을 신참 기자로서 읽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직접 작업해 보니 무거웠던 책임감 못지않은 부딪힘이 밀려오네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홍보부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빨리 읽고 싶은, 기다려지는 속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찬

글 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편집 후기 쓰는 이 순간에도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어떡해야 하지요?(농담)

처음 참여한 속기계인지라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해 가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보부, 힘을 내요 슈퍼 파워~~~

- 김진주

얼떨결에 홍보부 기자가 되어서 속기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집후기를 남기고 있는 지금 너무 영광스럽고 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53호 속기계 출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위치에서 속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보고 저 또한 속기인으로서 부딪힘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속기계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노고와 애정이 담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소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 김민아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02) 788-3083, 3183

홈 페이지 www.steno.or.kr

이 메 일 mars8018@assembly.go.kr

내 용 표지 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
협회발전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써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발전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3호 속기계

발행 2017년 5월

발행인 정성호
편집인 이규진
기자 김자영, 정다윤, 김진주, 박우찬, 김민아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화 02)788-2371~6
팩스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비매품